

세월호 소식나눔

People in Solidarity with Families of Sewol Ferry

필라 세사모는...

세월호를 기억하는 필라델피아 사람들의 모임(필라 세사모)은 세월호의 아픔을 잊지 않고 다시는 이런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국사회가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가 되기를 바라는 필라 지역 동포들의 모임입니다.

8월의 주요 활동

소식지와 기억물품을 계속 나눕니다.

- 8월 14일(일) 챌튼햄 H마트
- 8월 20일(토) 챌튼햄 H마트
- 8월 21일(일) 노스웨일즈 아씨마트
- 8월 27일(토) 체리힐 H마트

9월 행사 참가 안내

필라세사모는 세월호의 진실과 교훈을 미국 시민단체에 알리고,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함께 하고자 지역의 비영리단체인 Bread & Rose Community Fund가 주최하는 Change Ride 행사에 참여합니다. 자전거를 타고 필라 시내 곳곳 사회 정의와 관련된 주요 장소들을 방문하는 행사입니다. 동포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아침식사 제공)

- 일시 : 9/27(토), 8:30am ~ 1pm
- 장소 : 센터시티 ~ 페어마운트 파크
- 등록 : www.crowdrise.com/changeride (팀이름 PhilaSewol, 참가비 \$15)
- 자전거 대여 : 참가등록자는 Indego에서 할인요금 적용해 대여 가능



7월 21일, 광화문 세월호 분향소에서 들러 추모하는 성주 군민들(사진: 뉴스민)

“세월호 때 이렇게 당했구나”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THADD, 사드) 배치가 결정된 성주 군민들의 정부와 언론에 대한 분노가 치솟았던 한달입니다. 정부는 환경영향평가 사전절차를 무시하고 국방부의 현장방문 없이 배치를 결정했고, 언론은 사드 반대시위에 ‘넘비(지역이기주의)’나 ‘외부세력’을 들먹이며 왜곡보도했습니다. 정부 결정에 반대하는 목소리에 불통으로 일관하고, ‘이기주의’나 ‘불순세력’으로 낙인을 찍는 정부와 언론, 낯설지 않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세월호 가족들이 겪은 현실입니다. 성주군민들도 “세월호 때 이렇게 당했구나”며, 왜곡된 언론보도만 듣고 무관심했던 것에 미안하다고 합니다.

세월호와 사드, 안전과 생명에 관한 우리 모두의 문제

실제로 지난 7월 21일, 서울역에서 사드배치 반대 집회에 참여했던 성주군민들 중 150여명이 광화문 세월호 분향소를 찾아 세월호 특별법 개정 촉구 서명에 참여했습니다. 서명에 참여한 한 성주군민은 “사드는 성주 군민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의 생명에 관한 문제다. 세월호 참사도 안전과 생명에 관한 문제니 함께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세월호도 세월호 가족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폭염 속 광장을 지키고 도보순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발등에 불이 떨어지기 전에, 함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목소리에 동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 배 버리지 않겠다”



광화문에서 단식 농성 중인 이석태 위원장

“저는 특조위의 선장입니다. 세월호 참사는 선장이 배를 버리고 갔지만, 저는, 저희 위원들은,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그 마지막까지 저희는 싸우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유가족과 시민, 국민 여러분이 저희 뒤에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지난 6월 25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세월호 특별법 개정 촉구 범국민 문화제’에서 무대에 오른 이석태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의 발언 중 일부입니다. 실제로 정부의 예산과 인력 지원이 끊긴 7월에도 이석태 위원장과 조사위원들은 사무실에 출근해 활동을 계속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권영빈 위원이 ‘go발뉴스’에 전했듯이 “정부가 6월 30일로 세월호 특조위를 강제종료하면서 가장 심각한 것은 조사관들의 신분을 부정”하고 있어 “조사대상 기관들이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어, 조사활동을 이어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7월 27일부터 이석태 위원장을 시작으로 특조위가 정부의 조사방해활동 중단과 조사활동 보장을 촉구하며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반 시민들과 구의역 대책위, 전교조 등 노동·시민단체를 비롯하여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까지 동조단식과 지지방문으로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유가족과 국민들이 함께 만든 특조위, 침몰하지 않도록 지켜내야 할 때입니다.

세월호 주요 뉴스 살펴보기

세월호 선체인양, 빠르면 9월말 예상

해양수산부는 세월호 선미(배꼬리) 아래로 리프팅 빔을 설치하는 작업을 9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7월 말에 상하이 샬비지컨소시엄(SSC)이 세월호 선수(뱃머리)를 약 5도 들어올려 리프팅 빔 18개 설치를 완료하였고, 이번에 시작한 선미의 8개 추가 리프팅 빔이 완료되면 여기에 와이어를 연결해 세월호를 끌려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빔 설치에 해수부는 최대 한 달을 예상하고 있어, 원활하게 작업이 진행될 경우 세월호 인양이 완료되는 시점은 9월말 경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월호 특조위, 7월 말부터 활동기간 보장 단식 농성 중

한편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는 여전히 정부와 여당의 외면 속에 조사활동기간 보장을 촉구하는 릴레이 단식을 지난 7월 27일부터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석태 특조위 위원장을 필두로 현재는 박주민 의원을 포함한 더불어민주당 세월호 테스크 포스 소속의원들이 각각 1일씩 단식 농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활동시간의 시작점을 1월1일로 보는 것은 특조위 자체를 무력화하여 입법취지를 훼손한다는 입법조사처의 유권해석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기산일을 특조위가 구성도 되지 않은 1월 1일부터 산정하여 지난 6월말을 끝으로 예산 및 정부지원인력을 철수한 바 있습니다. 이로 인해 특조위 활동은 잠정 중단된 상태입니다.

8월 임시국회, 세월호 특조위 활동기간 보장될까?

8월 임시국회에서 세월호 특조위 활동기간 연장을 약속했던 야당이 22일 추가경정예산안 결의와 연계하던 것에서 한발 물러나 세월호 선체조사를 위한 별도의 조직구성을 주장하는 여당안을 수용할지 여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특조위에서도 5명의 여당추천인사들에 의한 조직적인 활동방해가 이루어졌던 점을 감안하면, 여야 동수구성을 주장하는 이번 여당안은 사실상 진실규명을 덮으려는 꼼수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월호 특조위, “가만히 있으라”는 청해진 해운의 지시, 과적 주범인 철근 중 278톤은 제주해군기지용 밝혀

여당추천인사들의 방해와 보수언론의 왜곡보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특조위는 211건의 조사진행 결정을 내렸고, 2차 청문회에서는 새로운 사실들을 밝혀내기도 했습니다. 특히 “가만히 있으라”는 내용의 방송이 청해진 해운의 지시였다는 것과, 정부발표와는 다른 실재 화물 적재량을 밝혀냈습니다. 아울러 과적의 주범이 철근 적재량인데, 그 중 제주해군기지용 철근이 278톤이나 실려있었다는 사실도 밝혀 논란의 불을 지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세월호에 제주해군기지용 철근이 없었다고 주장해왔던 터라, 검찰의 부실수사와 정부의 진실 덮기 행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세월호 대학생 도보순례 : 폭염 속 65km 진실 향한 걸음

세월호 희생학생들과 같은 나이의 대학생들이 목포에서 진도 팽목항까지 미수습자 수습, 온전한 선체인양, 성역없는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세월호 대학생 도보순례'에 나섰습니다. 416대학생연대를 중심으로 전국 각지에서 모인 대학생과 유가족 등 130여명으로 구성된 도보순례단은 7월 23일 목포신항을 출발해 7월 26일 진도 팽목항까지 3박 4일간 폭염 속 아스팔트 길 총 65km를 걸었습니다.

박세훈 공동단장은 "세월호 참사에 대해 잊지않고 행동하는 대학생들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며 "아직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하루 빨리 해결되는데 조그마한 힘이나마 보태고 싶고,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고생하는 유가족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단원고 2학년 3반 은지양 부친은 "청년들이 세월호 참사를 잊지 않고 함께 해준다는 말만으로도 고마운데 도보순례까지 나선다고 해서 유가족들도 목포로 내려왔다"며 "끝이 안보이는 싸움을 하고 있었는데 젊은 청년들이 함께 해주니 든든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도보순례에는 2015년 3월 필라지역 유가족간담회에 참여했던 경빈어머니 전인숙씨도 함께 했습니다.



(사진 4.16연대)

필라 세사모가 만난 사람(3)_세사모 최고령 활동가 손정례 할머니 “새끼 잃은 설움, 누구보다 잘 알기에 저도 가슴을 칩니다”



지난 7월, 필라델피아 시청 분수광장에서 솔트소울(SaltSoul) 공연 당시 손정례 할머니

“세월호 다큐멘터리를 보고는 가슴이 먹먹해 한동안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나도 큰 아들을 사고로 잃은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필라에서도 '세월호를 기억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전화해 늙은이지만 끼어달라고 부탁해 지금까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부모들, 원통함을 어떻게든 풀어줘야”

올해로 구순의 나이가 되었지만 세월호 진상규명에 대한 손정례 할머니(89세)의 관심과 의지는 어느 누구 못지 않다. 신문과 TV의 세월호 소식에 귀기울이고, 세사모 모임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세월호 소식을 더 찾아보고 싶어 작년에는 컴퓨터와 인터넷 사용법을 배우기도 했다. “이제 아흔되는 노인이 세상사 무슨 욕심이 더 있겠어요. 아이들, 부모들, 원통함을 어떻게든 풀어줘야지 않겠어요? 이런 일이 또 일어나지 않게 분명히 밝혀야지 않겠어요?”

아흔에도 왕성한 활동, “작으나마 할수있는일있어 감사해”

젊은 시절 한국에서 교편을 잡고 춤을 가르치기도 했던 손할머니는, 희생자들을 위한 간절한 마음을 기회가 될 때마다 춤으로 표현하고 있다. 필라한인노인회의 2015년 연말잔치에서는 노란 나비와 곰돌이 배지를 단 꼬깔을 쓰고 무대에 섰고, 공연이 끝난 후 관객들에게 춤과 소품에 담긴 의미를 설명했다. 세월호 참사 1주기 추모제에서는 필라국악원 정세영 단장의 장단에 맞춰 독무 ‘한춤’을 올렸고, 지난 7월 필라델피아 시청 분수광장에서는 미국 예술가들과 함께 김정웅 안무가의 <솔트소울>(SaltSoul) 팝업공연에도 참여했다.

“거동도 쉽지 않고, 이제 기억력도 예전같지 않아요. 그래도 감사합니다. 작으나마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으니 말이에요.”

세월호 (시: 손정례)

진도 바다 갈매기야
 진도 바다 갈매기야
 너희는 바다 속
 세월호에
 남아있는 아이들의
 울음 소리를 듣고 있겠지
 그 소리 서글퍼서
 너희도 함께 우는 거겠지
 부모들의 마음
 찢어지는 마음
 부모들의 울음
 한뼉한 울음
 하늘 문을 비집고 올라가서
 하느님의 가슴까지 올리는 통곡과 그리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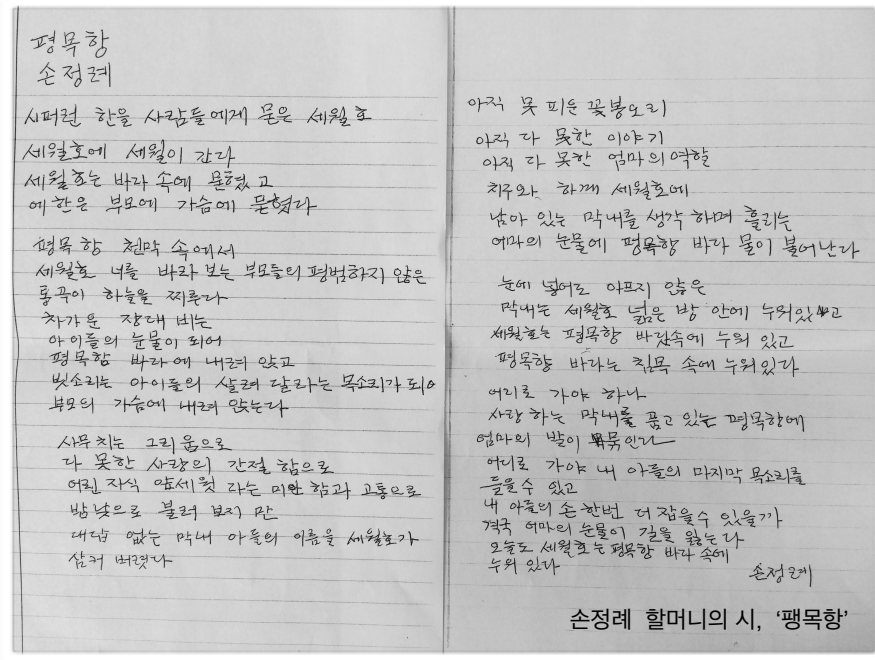
오늘 내린 비는
 하늘도 함께 우는 거겠지
 500일을 훌쩍 삼켜버린 세월호
 추석 둥근 달과
 반짝이는 물결은
 애달픈 부모 마음 알고 있을런가
 저 아픈 가슴
 감싸 주고
 보듬어 달라
 함께 두 손 모으는 거겠지

광고주를 모집합니다.

필라세사모의 <세월호 소식지>지는
 매월 둘째 주말에 1,000부씩 발행, 배포
 됩니다. 지역 매체에서 찾아보기 힘든 세
 월호 소식과 진실규명 현황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지속적인 발행을 위해, 뜻있는 후
 원자/단체, 사업체들의 광고를 신고자 하
 니, 많은 관심과 문의 부탁드립니다.

참여와 후원

필라세사모 활동에 대한 후원이나 참여, 소
 식지 광고 문의는 아래 연락처로 주십시오.
 - 이메일: philasewol@gmail.com
 - 전화: 267-475-7132, 814-777-4379
 - Paypal: philasewol@gmail.com
www.facebook.com/philasesamo



손정례 할머니의 시, '평목항'

(3면에 이어) 희생된 아이들과 유가족들을 생각하면 통곡을 하기도 한
 다는 손할머니는, 기도를 하거나 시를 쓰며 마음을 추스린다고 한다.
 그렇게 쓴 시 '세월호'와 '평목항'에는 피어보지도 못하고 희생된 아이
 들에 대한 안타까움과 자식없는 부모들의 아픔에 대한 깊은 공감의 문
 어있다.

“같은 부모의 심정, 끝까지 함께 하고픈 동료의 마음”

“시는 잘 못 쓰지만 이렇게라도 표현하지 않으면 전될 수가 없었어요.
 차마 어떻게 자식 앞세운 부모들의 처절한 마음을 글로 표현할까마는
 나도 같은 부모의 심정이 되어, 끝까지 진실규명을 위해 함께 하고픈
 동료의 마음으로 시를 적어 봤습니다.”

세월호 참사 오백일 추모 집담회에서는 “정말 세월호에 대해 진실을
 말하는 신문을 찾아볼 수 없다”고 한국 언론에 대한 답답함을 호소했
 다. 또한 “아무리 생각해봐도 박근혜 정권의 교체 없이는 세월호의 진
 실을 파헤칠 수 없을 것 같다”며 현 정권 하에서 진실규명 활동의 어려
 움을 간파하기도 했다. 지난 10월 진행된 세월호 가족들과 재외동포들
 의 온라인 만남에서는 유가족들에게 “버텨주셔서 감사하다, 끝까지 함
 께 하겠다”고 화상으로나마 직접 마음을 전했다.

“한국사회와 동포사회의 무관심, 가장 안타까워”

그러나 손할머니가 무엇보다 안타깝게 여기는 것은 한국사회와 동포
 사회의 세월호에 관한 무관심이다. “필라지역의 노인들과 함께하는 시
 간이 많아 소식지도 돌리고 세월호의 관심을 촉구해 보지만, ‘아직도
 세월호야? 고만잡 해라’하는 반응이 돌아오면 정말 답답합니다.”

세월호는 진실규명이 제대로 시작도 되지 않은 역사적 불행에 아직
 머물고 있다는 손정례 할머니, 그녀는 말한다. “새끼 잃은 설움, 누구보
 다 잘 알기에 저도 가슴을 칩니다. 유가족 여러분. 끝까지 용기를 잃지
 마세요. 저도 힘이 다하는 날까지 함께 하겠습니다.”